



ISSN 1227-0180

소년 2023년 성탄 특별호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 학습지

2023

성탄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

##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이사 52,7)



이제는 이 세상이 온전히 기쁘게  
평화하였음을 알립니다.

가톨릭출판사 인터넷쇼핑몰

[www.catholicbook.kr](http://www.catholicbook.kr)



가톨릭출판사



## 성탄을 축하합니다!

친구들, 아기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대림 시기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이 세상에 오시는 날을 기쁘게 맞이하도록 노력했어요. 우리 모두 《소년》과 함께 행복한 성탄 시기를 만들어가요!

## 목차

전례력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요!	2
음식 만화(2) 예수님은 요리사! 김준희	28
만화로 읽는 성인전(16) 교회를 빛낸 성인 송현철	52
만화로 배우는 전례 상식(38) 토마스의 전례 일기 양완 신부	60
재미있는 서양 미술 이야기 세잔의 새로운 미술 박혜원	64
묵상 만화(54) 복음에 생각 더하기 이윤진	68
퍼즐 여행 가로 보고 세로 보며 퍼즐 맞추기	76
소년에서 알립니다	78



대림 제1주일	4
대림 제2주일	10
대림 제3주일	16
대림 제4주일	22



주님 성탄 대축일	34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40
주님 공현 대축일	46





대림과 성탄 시기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또한 세상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기간입니다.

###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

12월에는 여러 축일이 있습니다. 먼저 12월 8일은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이에요. 이날은 원죄에 물들지 않은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하신 것을 기리는 날이지요. 1838년 제2대 조선교구 교구장이었던 앙베르 주교님은 당시 교황님에게 조선교구의 수호자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로 정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1841년 그레고리오 16세 교황님이 이를 허락했고, 그 뒤 한국 천주교회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를 수호성인으로 모셔요. 그리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성모님을 통해 아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12월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이지요.

### 기쁨이 넘치는 성탄 시기

우리는 주님 성탄 대축일 전날 밤 미사 때 아기 예수님께 기쁜 마음으로 경배드려

요. 그리고 주님 성탄 대축일부터 주님 세례 축일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날이 이어집니다. 이 시기의 모든 대축일과 축일, 주일, 성탄 팔일 축제 내 평일 미사에서는 대영광송을 노래해요. 또한 이 기간에 신부님은 순결과 기쁨을 상징하는 하얀색 제의를 입습니다. 또한 12월 31일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이에요. 성가정을 기억하며 이를 본받고자 만든 날이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그렇게 할 때 성탄의 기쁨이 더 커질 거예요! ✨

### ★ 판공성사

가톨릭 신자라면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에 고해성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이를 판공성사라고 한답니다.

이사 63,16ㄹ-17,19ㄷㄹ; 64,2ㄴ-7



제1독서

.....<sup>19</sup> 아, 당신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당신 앞에서 산들이 뒤흔들리리이다.<sup>64,2</sup> 당신께서 내려오셨을 때 산들이 당신 앞에서 뒤흔들렸습니다.<sup>3</sup> 당신 아닌 다른 신이 자기를 고대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 보지 못하였고 아무도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어떠한 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sup>4</sup> 당신께서는 의로운 일을 즐겨 하는 이들을, 당신의 길을 걸으며 당신을 기억하는 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죄를 지었고 당신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당신의 길 위에서 저희가 늘 구원을 받았건만<sup>5</sup> 이제 저희는 모두 부정한 자처럼 되었고 저희의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들도 모두 개짐과 같습니다. 저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어 저희의 죄악이 바람처럼 저희를 휩쓸어 갔습니다.<sup>6</sup> 당신 이름 부르며 경배드리는 자 없고 당신을 붙잡으려고 움직이는 자도 없습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외면하시고 저희 죄악의 손에 내버리셨기 때문입니다.<sup>7</sup>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저희는 진흙, 당신은 저희를 빚으신 분 저희는 모두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1코린 1,3-9



제2독서

.....<sup>5</sup>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모로나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떠한 말에서나 어떠한 지식에서나 그렇습니다.<sup>6</sup>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에 튼튼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sup>7</sup>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sup>8</sup>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굳세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 주실 것입니다.<sup>9</sup>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 주셨습니다.



# 예수님 기다리기

#새해 #전례력 #가톨릭 #대림환 #대림시기 #주님성탄대축일 #그리스도

메일 카페 블로그 지식iN 사전 뉴스 지도 영화 뮤직 책 웹툰



목자들의 경배  
아놀로 브론치노, 1539~1540년, 나무에 유채, 미술 박물관, 부다페스트, 헝가리

## 전례력의 시작

교회에는 교회의 달력인 전례력이 있습니다. 전례력은 새해인 1월 1일이 아니라, 주님 성탄 대축일 4주 전 주일(11월 하순이나 12월 초순)인 대림 제1주일에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주님 성탄 대축일은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4주간의 대림 시기 동안 이를 준비합니다.

대림 시기는 준비와 기도, 희망과 기대라는 주제로 이어져요. 이 기간에 독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마침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대림 시기 동안 확인할 수 있어요.

## 대림 시기의 특징

대림 시기에는 대영광송을 부르지 않아요. 주님 성탄 대축일 성야 미사 때가 되어야 부르지요. 우리가 대림 시기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신자들은 주님 성탄 대축일이 오기를 기다리며 집과 성당에 네 자루의 초와 함께 대림환을 꾸며 놓습니다. 대림환의 푸른 잎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받으리라 기대하는 영원한 삶을 나타내요. 대림환에 장식한 초는 대림 시기 동안 한 주일씩 지날 때마다 하나씩 켜집니다. 늘어나는 촛불은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오기를 더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나타내요. ✎

대림 실천표를 만들어 보아요!



마르 13,33-37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sup>33</sup>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sup>34</sup>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sup>35</sup>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sup>36</sup>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sup>37</sup>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p>1</p> <p>집주인은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무엇을 하나요?</p> <p>①문단속한다. ②종들에게 각자 할 일을 맡긴다. ③종들에게 정확히 언제 돌아오는지 이야기한다. ④문을 활짝 열어 놓는다.</p>	<p>2</p> <p>집주인은 집에 언제 돌아 오나요?</p> <p>①저녁 ②한밤중 ③새벽 ④모른다.</p>	<p>3</p> <p>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보아요.</p> <p>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input type="text"/>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p> <p>①일하는      ②놀고 있는 ③밥 먹는      ④잠자는</p>
<p>4</p> <p>문지기에게 맡긴 역할은 무엇인가요?</p> <p>①깨어 있기 ②발 갈기 ③음식 차리기 ④빨래하기</p>	<p>5</p> <p>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여러 번 반복하여 당부한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p> <p>①푹 쉬어라. ②안심하고 있어라. ③깨어 있어라. ④잘 자고 있어라.</p>	<p>6</p> <p>주인은 길을 떠나며 종들에게 무엇을 주었나요?</p> <p>①창고 열쇠 ②집 열쇠 ③돈 ④권한</p>

집주인은 집을 떠나며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자에게 할 일을 맡깁니다.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해요. 단순히 깨어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할 일을 하며 깨어 있어야 하지요. 대림 시기를 맞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 + 대림 시기를 맞아 내가 지은 죄를 성찰해 보아요.
- + 대림초를 만들어요.





요한

신부님, 오늘부터 대림 시기래요.  
그런데 '대림'이 무슨 뜻인가요?

대림은 한자 말이라. 기다릴 待 임할 臨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이지.



요한

그러면 쉽게 기다림의 시기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어려운 한자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 시기도 다시 살아난 시기라고  
해야 하나? ㅋㅋㅋ



우리 한국 천주교의 용어 중에는 한자 말이 상당히 많단다. 한국  
교회의 신앙 선조들이 사용했던 말들을 많은 부분 그대로 사용하  
고 있기 때문이지!

한자도 배우고 그 의미도 알게 되고 일석이조 아닐까! ^^



위의 QR 코드 이미지를 스캔하면 《소년》 전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됩니다.  
성당 다니면서 궁금했던 질문을 남겨 주시면 다음 호에 소개해 드릴게요!

이사 40,1-5,9-11



제1독서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 너희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 <sup>2</sup> 예루살렘에게 다정히 말하여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짓밟이 치러졌으며 자기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주님 손에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sup>3</sup>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에 길을 곧게 내어라. <sup>4</sup>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sup>5</sup>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sup>9</sup>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한껏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의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하고 말하여라. ……

2베드 3,8-14



제2독서

…… <sup>10</sup>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스러지며,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sup>11</sup> 이렇게 모든 것이 스러질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신심 깊은 생활을 하면서, <sup>12</sup>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길에 싸여 스러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녹아 버릴 것입니다. <sup>13</sup>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up>14</sup>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 성령과 예수님

#가톨릭 #성령 #세례 #견진 #요한세례자 #예수님 #성모님 #구세주

메일 카페 블로그 지식iN 사전 뉴스 지도 영화 뮤직 책 웹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요한 세례자  
니콜라 푸생, 1635년, 캔버스에 유채, 루브르 박물관, 파리, 프랑스

## 구세주를 기다리는 시간

마태오 복음서를 보면, 요한 세례자는 예수님에 관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마태 3,11)

이보다 훨씬 전에, 이사야 예언자는 이미 기다리던 구세주에 대해 이처럼 말했어요.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함이다.”(이사 11,2)

## 약속이 이루어지다

하느님께서 구세주를 보내 주신다는 약속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인해 아기를 잉태하였으며,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게 태어난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셨지요.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성령은 특별히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하여 주어집니다. 이 두 성사는 우리를 교회의 구성원으로 태어나게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요. ✠



마르 1,1-8



<sup>1</sup>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sup>2</sup>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sup>3</sup>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sup>4</sup>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sup>5</sup>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sup>6</sup>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sup>7</sup>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sup>8</sup>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p>1</p> <p>각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찾아 적으세요.</p> <p>□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시작.</p>	<p>2</p> <p>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예언자는 누구인가요?</p> <p>①이사야 ②예레미야 ③에제키엘 ④다니엘</p>	<p>3</p> <p>예수님의 앞에 올 사자는 누구인가요?</p> <p>①베드로 ②마리아 ③요한 세례자 ④요한 사도</p>
<p>4</p> <p>요한은 어디에서 세례를 주었나요?</p> <p>①갈릴래아 호숫가 ②요르단강 ③예루살렘 성전 ④겔세마니 동산</p>	<p>5</p> <p>요한은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나요?</p> <p>①불 ②물 ③성령 ④공기</p>	<p>6</p> <p>요한의 뒤에 오실 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주실 것인가요?</p> <p>①불 ②물 ③성령 ④공기</p>

핵심 꼭꼭

더러워진 몸은 목욕하면 다시 깨끗해지지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어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은 회개하고 고해성사를 보면 다시 깨끗해집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요한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고해성사를 하고 깨끗해진 영혼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해요. ✱

- + 주변의 소외된 친구와 인사를 나누어요.
- + 대림 시기를 맞아 고해성사를 해요.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대림 시기에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사순 시기에도 이런 말을 들어봤던 것 같아요.

오! 훌륭한데~

사순 시기는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이고, 대림 시기는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시기라서 “깨어 있어라.” 하고 말하는 거란다.



대건 안드레아

그런데 그냥 맞이하면 되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나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하면, 아빠와 엄마가 미리 청소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실 거야,

그런데 제일 큰 손님인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러니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기쁘게 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위의 QR 코드 이미지를 스캔하면 《소년》 전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됩니다. 성당 다니면서 궁금했던 질문을 남겨 주시면 다음 호에 소개해 드릴게요!

이사 61,1-27,10-11



제1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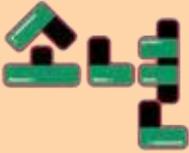
<sup>1</sup>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sup>2</sup>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sup>10</sup>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은 나의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신랑이 관을 쓰듯 신부가 패물로 단장하듯 그분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로움의 겹옷을 돌려 주셨기 때문이다. <sup>11</sup> 땅이 새순을 돋아나게 하고 정원이 싹을 솟아나게 하듯 주 하느님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 의로움과 찬미가 솟아나게 하시리라.

1테살 5,16-24



제2독서

형제 여러분, <sup>16</sup>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sup>17</sup>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sup>18</sup>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sup>19</sup>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sup>20</sup>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sup>21</sup>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sup>22</sup>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하십시오. <sup>23</sup> 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 없이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sup>24</sup>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 그리스도 예수님

#가톨릭 #교회 #구원자 #구세주 #예수님 #이름 #IHS #예수회

메일 카페 블로그 지식iN 사전 뉴스 지도 영화 뮤직 책 웹툰



인류의 구세주 예수 안드레아스 리초스, 1436~1492년, 나무에 템페라, 비잔틴 미술관, 아테네, 그리스

##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하느님은 구원하신다.’ 또는 ‘하느님은 도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마태 1,21)이고, 몸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되찾으실 것(마태 20,28 참조)이므로 그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합니다.

한편 그리스도(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그리스어로 ‘기름부음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령과 힘”(사도 10,38)으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례·견진·성품성사 때, 성유(축성된 기름)로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 예수님을 뜻하는 약자

IHS는 성당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황 문장에서 볼 수 있어요. 이는 예수를 뜻하는 그리스어의 첫 세 글자로, 라틴어에서 I와 J는 같은 글자라서 이렇게 쓸 수 있답니다.

예수님을 뜻하는 모노그램 IHS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녔어요. 이를 ‘인간의 구원자 예수 Jesus Hominem Salvator.’로 해석하기도 하고, 십자 성호에서와 같이 ‘이 표시로 너는 승리할 것이니 In Hoc Signo vinces.’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지요. 여러 수도회 중에서, 특히 로올라의 이냐시오 성인이 창설한 예수회는 그리스도의 모노그램인 IHS를 대중화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



<sup>6</sup>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sup>7</sup>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sup>8</sup>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sup>19</sup>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sup>20</sup>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sup>21</sup>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sup>22</sup>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sup>23</sup>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sup>24</sup>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sup>25</sup>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sup>26</sup>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sup>27</sup>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리기에 도 합당하지 않다.” <sup>28</sup>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p>1</p> <p>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누구인가요?</p> <p>①베드로 ②요한 ③마리아 ④유다</p>	<p>2</p> <p>요한은 무엇을 증언하러 왔나요?</p> <p>①빛 ②엘리아 ③이사야 ④예언자</p>	<p>3</p> <p>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적어 보세요.</p> <p>나는 그분의 <input type="text"/>을 풀어 드리기에든 합당하지 않다.</p>
<p>4</p> <p>요한에게 사람을 보낸 이들은 누구인가요?</p> <p>①레위인 ②사제들 ③바리사이 ④로마인</p>	<p>5</p> <p>요한의 뒤에 오실 분은 누구인가요?</p> <p>①베드로 ②마리아 ③요셉 ④그리스도</p>	<p>6</p> <p>요한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했나요? 찾아서 적어 보아요.</p>

핵심 꼭꼭

사람들은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요한이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뒤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요.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어 그들이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했어요. ✱

- +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해 화살기도를 바쳐요.
- + 자선 주일을 맞아 용돈을 기부해요.

12월 17일 대림 제3주일

지난 한 주간, 죄에 대해 잘 바라봤나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내가 생각보다 죄를 많이 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곧, “난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을 거 같아.”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정말 악마의 유혹입니다. 악마가 예수님께서는 너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고 속삭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죄를 지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친구들이 먼저 포기할 건가요? 포기하지 않고 하느님과 함께하겠다면,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힘들고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면 오늘 바오로 사도가 제1독서에서 이야기하듯, 언제나 하느님과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느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일에 감사하면, 우리가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

글 한승진 신부(베드로)

1. 성당에서 있었던 행복했던 일들을 적어 봅시다.
  
2. 성당에서 있었던 행복한 일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찾아 적어 봅시다.
  
3. 일주일 동안, 나의 하루 안에서 예수님이 느껴진 순간들을 적어 봅시다.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

-----

-----

-----

-----

-----

아멘.



시아

신부님! 대림 시기를 보내는 동안  
대림환을 제대 앞에 두더라고요.



시아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유심히  
보니 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거예요?

대림환에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어. 특히  
대림환이 둥근 것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  
하신 하느님을 상징하기 때문이란단다.



시아

아하 그렇군요. 멋진 의미가 담겨 있네요!  
그건 그렇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초록색 나뭇가지를 써서 만드는 거예요?



보통 초록색 나뭇가지는 사철나무인데, 사철나무는  
계속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지.

이는 우리에게 내리쬐릴 하느님의 새로운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뜻한단다! ^^



위의 QR 코드 이미지를 스캔하면 《소년》 전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됩니다.  
성당 다니면서 궁금했던 질문을 남겨 주시면 다음 호에 소개해 드릴게요!

2사무 7,1-5,8ㄷ-12.14ㄱ.16



제1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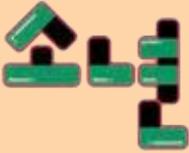
.....<sup>3</sup> 나탄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서서 무엇이든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십시오.”<sup>4</sup>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sup>5</sup>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다는 말이나?’<sup>8</sup> 나는 양 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sup>9</sup> 또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sup>10</sup>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sup>11</sup>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판관을 임명하던 때부터 해 온 것처럼, 나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 주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sup>12</sup>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네 몸에서 나와 네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sup>14</sup>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sup>16</sup> 너의 집안과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네 왕좌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로마 16,25-27



제2독서

형제 여러분,<sup>25</sup> 하느님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또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신비의 계시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sup>26</sup> 이제는 모습을 드러낸 이 신비가 모든 민족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도록, 영원하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sup>27</sup> 홀로 지혜로우신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 예수님의 어머니

#가톨릭 #마리아 #성모님 #동정 #원죄 #가브리엘천사 #은총

메일 카페 블로그 지식iN 사전 뉴스 지도 영화 뮤직 책 웹툰



주님 탄생 예고  
프라 안젤리코, 1430~1432년, 나무에 템페라, 프라도 미술관, 마드리드, 스페인

## 평생 동정이신 분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고 말했지요. 마리아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루카 1,34) 하고 말했지만, 천사는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루카 1,35)라고 대답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당시 마리아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었지만,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확신했어요. 따라서 교회는 동정 마리아가 ‘남자의 관여 없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였다는 것을 믿는답니다.

## 원죄 없는 잉태

교회는 예수님 탄생 후에도 마리아가 여전히 동정이었다고 가르쳐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형제와 누이에 대해 말하지만, 이들은 마리아의 자녀가 아니라 친척이었을 뿐이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는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이사 7,14)라고 동정녀의 출산을 예언했어요. 어떻게 하느님께서 죄 많은 인간의 몸속에서 아홉 달을 계실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성모님은 원죄에 물들지 않으신 분이예요. 나아가 교회는 마리아가 일생 동안 본죄에서도 자유로웠다고 믿어요. 하느님의 은총 덕분이지요. ♯



그때에 <sup>26</sup>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 시어, <sup>27</sup>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sup>28</sup>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sup>29</sup>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sup>30</sup>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sup>31</sup>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sup>32</sup>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sup>33</sup>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sup>34</sup>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sup>35</sup>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sup>36</sup>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sup>37</sup>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sup>38</sup>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p>1 어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갔나요?</p> <p>①마카엘 ②라파엘 ③가브리엘 ④세라핌</p>	<p>2 마리아는 누구와 약혼한 사이였나요?</p> <p>①베드로 ②바오로 ③요나 ④요셉</p>	<p>3 처음 천사를 맞이한 마리아의 기분은 어떠했나요?</p> <p>①몹시 놀랐다. ②몹시 기뻐다. ③몹시 슬펐다. ④몹시 행복했다.</p>
<p>4 천사가 일러 준 아기의 이름은 무엇인가요?</p> <p>①베드로 ②예수 ③바오로 ④요한</p>	<p>5 마리아가 사는 곳은 어디였나요?</p> <p>①베들레헴 ②예루살렘 ③나자렛 ④베타니아</p>	<p>6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적으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input type="text"/></p> <p>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p> </div>

핵심 꼭꼭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요. 하느님의 아드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이었어요. 마리아는 하느님의 큰 뜻을 알기에 순명할 수 있었지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묵상하며, 언제나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해요. ✱

- + 삼종 기도를 바쳐요.
- + 환희의 신비 1단을 바쳐요.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엄마가 대림 시기라고 판공성사 보고 오랬어요. 근데 너무 귀찮아요.

귀찮아도 꼭 성당 와서 성사 보고 가...



대건 안드레아

저번 사순 시기도 그렇고 이번 대림 시기도 그렇고, 판공성사는 의무라던데요. 안 보면 안 되나요?

사실 판공성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고해성사와는 다르단다. 바로 성사표라는 것을 제출해야 하거든. 이 성사표를 제출하면 교적에 기록해 두는데, 그렇게 신자들의 신앙 상태를 돌보려는 의도도 있어.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제 영혼은 제가 잘 알아요! ㅎㅎㅎ 그러니 저는 다음에 성사를 불러요...

교만한 걸 보니, 벌써 성사 볼 내용이 생겼네~

판공성사는 무거운 의무와 보속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란다. 얼른 성사 보러 가자!





# 예수님은 빵 요리사!

김준희 지음





‘슈톨렌’은 독일어로 나무 기둥,  
말뚝을 뜻하는데 빵 모양이  
잘라 놓은 나무 같아서  
붙여졌다고 해.

1년간 럼이라는 술에  
재운 건조 과일과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가  
들어간 빵인데  
냉장고에  
넣지 않아도  
2~3주 정도  
먹을 수 있어.



이제 잘라 볼까?

우선 가운데를  
반으로 잘라.



그다음  
가운데부터 한 조각씩  
잘라 먹는 거야.

잘라서 먹은 후  
두 단면을 서로 맞붙여서  
랩으로 감싸거나  
통에 담아서 보관하면  
마르지 않고  
오래 먹을 수 있지.



중세 때  
수도사들이 입는  
망토 위에 눈이 쌓인 모습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만든 빵이라는 이야기도 있어.



이탈리아에서는  
천연 효모와  
럼이라는 술에  
재운 과일과  
버터를 넣은  
'파네토네'  
라는 빵을  
먹어.



이 빵을 처음 만든 이탈리아 제빵사의 이름이  
'토니'이고 '파네'가 빵을 의미하니까  
토니의 빵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또 황금으로 만든  
빵이라는 의미의  
'판도로'도 먹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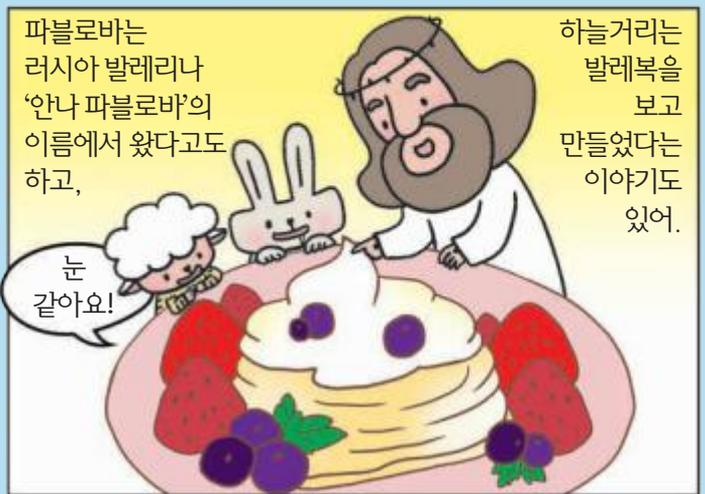
버터와 달걀노른자가  
들쭉 들어가서  
빵이 황금색으로  
보여 '판도로'라고  
부르게 되었어.



원래 이탈리아 베로나 지방에서  
주일에 먹던 빵이었는데



이제  
크리스마스에  
먹는 빵이 된 거지.



파블로바는 러시아 발레리나 '안나 파블로바'의 이름에서 왔다고도 하고,

하늘거리는 발레복을 보고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어.



이사 52,7-10



제1독서

<sup>7</sup>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 “너의 하느님은 임금님이시다.” 하고 시온에게 말하는구나. <sup>8</sup> 들어 보아라. 너의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다 함께 환성을 올린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심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본다. <sup>9</sup> 예루살렘의 폐허들아, 다 함께 기뻐하며 환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다. <sup>10</sup>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한 팔을 걷어붙이시니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히브 1,1-6



제2독서

<sup>1</sup>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sup>2</sup>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만들기까지 하셨습니다. <sup>3</sup> 아드님은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이므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 그분께서 죄를 깨끗이 없애신 다음,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sup>4</sup> 그분께서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으시어, 그만큼 그들보다 위대하게 되었습니다. <sup>5</sup> 하느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sup>6</sup> 또 만아드님을 저세상에 데리고 들어가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 성탄을 기념하는 기간

#가톨릭 #주님성탄대축일 #성탄팔일축제 #천주의성모마리아대축일

메일 카페 블로그 지식iN 사전 뉴스 지도 영화 뮤직 책 웹툰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스도의 탄생'  
조토 디 본도네, 1304~1306년, 프레스코화, 스크로베니 경당, 파도바, 이탈리아

##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주님 성탄 대축일은 전례력에서 가장 중요한 대축일 중 하나입니다.

하느님의 천사는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 이시다.”(루카 2:11)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어요.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바칠 때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라는 부분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는 것도 이날을 기념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답니다. 바로 이 구절이 나타내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이 주님 성탄 대축일이예요.

## 8일 동안 기념하는 축제

우리는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깊이 체험하려고 성탄 팔일 축제를 지냅니다. 12월 25일(주님 성탄 대축일)부터 1월 1일까지(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 다음 날은 첫 순교자인 스테파노 성인을 기념합니다. 27일에는 요한 복음사기를, 28일에는 강생하신 말씀을 위해 목숨을 빼앗긴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을 기념합니다. 이들은 헤로데 임금의 명령으로 죽임을 당한 베들레헴의 두 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입니다(마태 2:16 참조). 주님 성탄 대축일 다음 주일에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기념해요. 그리고 새로운 한 해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sup>1</sup>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sup>2</sup>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sup>3</sup>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sup>4</sup>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sup>5</sup>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sup>6</sup>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sup>7</sup>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sup>8</sup>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sup>9</sup>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sup>10</sup>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sup>11</sup>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이하지 않았다. <sup>12</sup>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sup>13</sup> 이들은 혈통이나 육육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sup>14</sup>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sup>15</sup>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sup>16</sup>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sup>17</sup>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sup>18</sup>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 주셨다.



<p>1</p> <p>오늘 복음에서 다음 단어가 몇 번 등장하나요?</p> <p>말씀: <input type="text"/> 번</p>	<p>2</p> <p>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누구인가요?</p> <p>①베드로 ②야고보 ③요셉 ④요한</p>	<p>3</p> <p>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은 누구인가요?</p> <p>①요한 ②마리아 ③베드로 ④예수 그리스도</p>
<p>4</p> <p>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p> <p>말씀이 <input type="text"/> 이 되서 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p> <p>①동물      ②사람 ③하느님    ④생명</p>	<p>5</p> <p>복음을 읽고 어울리는 것끼리 짝지어 보아요.</p> <p>율법 ·                      · 예수님  진리 ·                      · 모세</p>	<p>6</p> <p>예수님께서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었나요?</p>

핵심 꼭꼭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려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답니다. 기쁜 소식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 곁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합시다. ✨

- + 우리 성당 구유에 계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해요.
- +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에 참여해요.





요한 보스코

신부님! 궁금한 게 있어요.



요한 보스코

왜 크리스마스를 X-mas라고 하는 거예요?



에구... 그 엑스가 우리가 아는 엑스가 아니야.

영어 엑스가 아니라, 희랍어의 '키이'라고 하는 글자란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제일 앞글자를 뜻하는 것이지.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불러야 하는데, 줄여서 X-mas라고 하는 거야.



요한 보스코

흠. 그럼 크리스마스의 뜻은 뭔가요?

그리스도의 미사! 즉,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지! ^^



위의 QR 코드 이미지를 스캔하면 《소년》 전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됩니다. 성당 다니면서 궁금했던 질문을 남겨 주시면 다음 호에 소개해 드릴게요!

집회 3,2-6.12-14



제1독서

<sup>2</sup>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 하셨습니다. <sup>3</sup>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sup>4</sup>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sup>5</sup>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sup>6</sup>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sup>12</sup> 얘야, 네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sup>13</sup>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네 힘을 다하여라. <sup>14</sup>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히지 않으니까 네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콜로 3,12-21



제2독서

형제 여러분, <sup>12</sup>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sup>13</sup>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sup>14</sup>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입니다. <sup>15</sup>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sup>16</sup>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 드리십시오. ....



# 예수님의 존재



#가톨릭 #하느님 #예수님 #말씀 #사람 #로고스 #신성 #인성

메일 카페 블로그 지식iN 사전 뉴스 지도 영화 뮤직 책 웹툰



성전에서 예수를 봉헌함  
귀도 다 시에나, 1270년대, 나무에 템페라, 루브르 박물관, 파리, 프랑스

## 사람, 말씀, 하느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구세주를 보내시겠다는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요한 복음사가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전합니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요한 1:1)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말씀(로고스)'이라는 용어를 하느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이며 중개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느님이십니다.

## 하느님이시며 인간이신 분

한편 예수님께서서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평범한 어린이로 자라셨습니다. 또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하셨고, 지치셨으며, 마침내 돌아가셨습니다. 죽었다가 사흘날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도, 영광을 받으시긴 했지만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서는 죄 이외의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으셨습니다(히브 4:15 참조).

결국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시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몸소 그 가르침을 실천하셨어요. 그분은 그분의 인성을 통해 완전한 인간이 사는 법을 보여 주셨지요. ✠



<sup>22</sup>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sup>23</sup>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sup>24</sup>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sup>25</sup>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sup>26</sup>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뵈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 주셨다. <sup>27</sup>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sup>28</sup>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sup>29</sup>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sup>30</sup>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sup>31</sup>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sup>32</sup>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sup>33</sup>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sup>34</sup>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sup>35</sup>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sup>36</sup>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프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일곱 해를 살고서는, <sup>37</sup> 여든네 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sup>38</sup>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sup>39</sup>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래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sup>40</sup>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충애를 받았다.



<p>1</p> <p>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과 부모님은 왜 예루살렘에 갔나요?</p> <p>①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하려고 ②가족과 나들이하려고 ③축제가 있어서 ④친척들을 만나려고</p>	<p>2</p> <p>율법은 어떠한 재물을 바쳐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나요?(정답 두 개)</p> <p>①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 ②어린 양 한 마리 ③어린 염소 두 마리 ④산비둘기 한 쌍</p>	<p>3</p> <p>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보아요.</p> <p>제 눈이 당신의 <input type="text"/>을 본 것입니다.</p> <p>①은총      ②구원 ③성령      ④영광</p>
<p>4</p> <p>예수님을 보고 하느님을 찬미한 예언자들은 누구인가요?</p> <p>①시메온과 엘리사벳 ②프누엘과 한나 ③시메온과 한나 ④엘리사벳과 한나</p>	<p>5</p> <p>시메온에게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알려 준 이는 누구인가요?</p> <p>①성부 ②성자 ③성령 ④천사</p>	<p>6</p> <p>모든 일을 마친 예수님과 부모님은 어떤 곳으로 돌아갔나요?</p> <p>①베들레헴 ②카파르나움 ③벳사이다 ④나자렛</p>

핵심 콕콕

시메온과 한나는 보물을 발견한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을 맞이했어요.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그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었어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우리도 시메온과 한나처럼 기쁨을 나누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

- + 성무일도 중 시메온의 노래 부분을 기도해요.
- + 가족들과 함께 성당에 가서 미사에 참여해요.



## 12월 31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친구들은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나요? 저는 점점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가족이 싫어져서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가족들이 막 싫진 않았습니다. 그냥 부끄러웠습니다. 또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당연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밥해 주시는 것이 당연했고, 아버지가 용돈을 주시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감사함도 사랑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과 입에서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 주는 많은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매일 부모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꺼이 희생하고 계신 것들입니다. 친구들이 익숙함에서 벗어나,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랑의 순간을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끄러워 말고 표현하기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성가정 축일인 오늘, 친구들이 먼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가족이 성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글 한승진 신부(베드로)

1. 가족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일들을 적어 봅시다.
2. 내가 하루에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하는지 적어 봅시다.
3.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문을 만들어 봅시다.
4. 가족에게 지금 사랑한다고 말해요.

축복을 내리시는 주님,

.....

.....

.....

.....

.....

아멘.



레아

저 오늘 엄마랑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었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성탄절에는 왜 트리를 만들까요?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 때 반짝이는 전구와 각종 장식들을 함께 달잖아. 바로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념하는 것이라네.



레아

그러면 왜 하필 나무에다가 장식을 하나요?

크리스마스트리는 두 가지 나무를 상징하는데! 먼저 에덴동산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서 아담과 하와의 잘못을 기억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

또 다른 하나는 '생명 나무'로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달리신 '십자 나무'를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지.

크리스마스트리가 그냥 반짝이고 화려한 것만은 아니니까, 트리를 꾸밀 때는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어! ㅎㅎ



위의 QR 코드 이미지를 스캔하면 《소년》 전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됩니다.  
성당 다니면서 궁금했던 질문을 남겨 주시면 다음 호에 소개해 드릴게요!

이사 60,1-6



제1독서

예루살렘아, <sup>1</sup>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 <sup>2</sup>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겨레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네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sup>3</sup>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sup>4</sup> 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네게로 온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 온다. <sup>5</sup> 그때 이것을 보는 너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오르리라. 바다의 보화가 너에게로 흘러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온다. <sup>6</sup> 낙타 무리가 너를 덮고 미디안과 에파의 수낙타들이 너를 덮으리라. 그들은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에페 3,2,3L,5-6



제2독서

형제 여러분, <sup>2</sup>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를 여러분은 들었을 줄 압니다. <sup>3</sup>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sup>5</sup>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sup>6</sup>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날



#가톨릭 #동방박사 #주님공현대축일 #별 #황금 #유향 #몰약 #예수님

메일 카페 블로그 지식iN 사전 뉴스 지도 영화 뮤직 책 웹툰



동방 박사의 경배  
프란체스코 바사노, 1567~1569년, 캔버스에 유채, 에르미타주 미술관,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 예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신 날

2024년 1월 7일은 동방 박사 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로서 드러나셨는지를 기리는 주님 공현 대축일이예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이스라엘에 위대한 임금이 탄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답니다.

동방 박사가 가져온 선물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황금'은 임금을 위한, '유향'은 사제를 위한, '몰약'은 시신의 방부 처리를 위한 것이지요(마태 2:11 참조).

## 주님 공현 대축일에만 하는 일

어떤 나라에서는 이날 콩이나 장신구를 속에 넣은 주님 공현 케이크 또는 왕 케이크를 만들어요. 자기가 먹는 케이크 조각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날의 임금이 됩니다.

또한 주님 공현 대축일에는 축복받은 집의 문에 'C+M+B'와 함께 그해를 나타내는 숫자를 쓰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는 세 현인의 이름이라고 전해지는 가스파르Casper, 멜키오르Melchior, 발타사르Balthasar의 머리글자를 표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이 집을 축복하소서(Christus Mansionem Benedicat)'라는 뜻의 라틴어 머리글자를 표시한 것이기도 해요. ✠



<sup>1</sup> 예수님께서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sup>2</sup>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sup>3</sup>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sup>4</sup>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sup>5</sup>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헬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sup>6</sup> ‘유다 땅 베들레헬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sup>7</sup>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sup>8</sup> 그들을 베들레헬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sup>9</sup>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sup>10</sup>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sup>11</sup>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sup>12</sup>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



<p>1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임금 때에 태어나셨나요?</p> <p>①다윗 ②솔로몬 ③사울 ④헤로데</p>	<p>2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인가요?</p> <p>①나자렛 ②베들레헴 ③베타니아 ④벳사이다</p>	<p>3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보아요.</p> <p>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 ]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p> <p>①태양      ②달 ③별        ④구름</p>
<p>4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들은 헤로데 임금은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p> <p>①깜짝 놀랐다. ②더없이 기뻐다. ③몹시 슬퍼했다. ④무척 궁금했다.</p>	<p>5 동방 박사가 예수님에게 예물로 드린 것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p> <p>①황금 ②유향 ③보석 ④몰약</p>	<p>6 아기 예수님을 본 동방 박사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p> <p>①깜짝 놀랐다. ②더없이 기뻐했다. ③몹시 슬퍼했다. ④무척 궁금했다.</p>

핵심 코너

반짝이는 별을 보고 먼 여정을 떠난 동방 박사들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 별이 멈추자, 더없이 기뻐합니다. 묵묵히 길을 걸어가 마침내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요. 동방 박사의 여정처럼 주님을 향해 가는 길은 조금 지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참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가야겠어요. ✨

+ 예수님께 드릴 봉헌을 정성스레 준비해요.

+ 성당 구유에 나타난 동방 박사의 모습을 보아요.





마르코

신부님, 왜 성탄 시기 미사 때는 왜 구유를 장식하나요?



이! 그건 역사적으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과 깊은 관련이 있다.

1223년쯤에 프란치스코 성인은 사람들에게 직접 베들레헴의 마구간을 보여 주고자 했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소와 당나귀 옆에 어떻게 누워 있는지 보여 주면 더 확실하게 기억될 수 있잖아. 이것이 구유의 시작이네!



마르코

그렇다면 그냥 보면 되지,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때 경배까지 해야 하나요?

구유를 꾸미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을 재현하는 것이야.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이 되어 오심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지. 그래서 예를 갖추고 인사를 드린단디!



위의 QR 코드 이미지를 스캔하면 《소년》 전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됩니다. 성당 다니면서 궁금했던 질문을 남겨 주시면 다음 호에 소개해 드릴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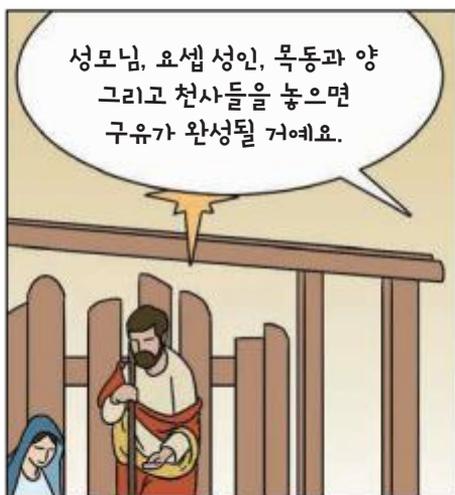


# 교회를 빛낸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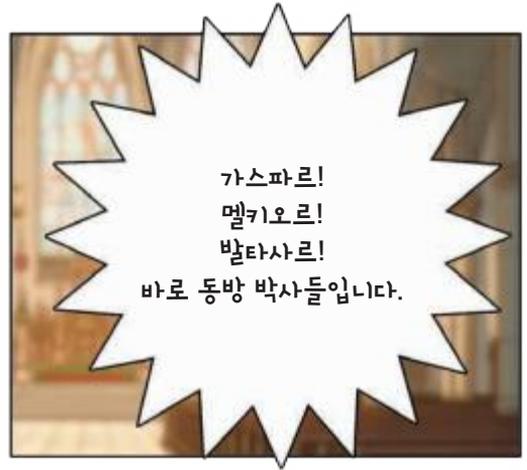
16화\_동방 박사 (가스파르, 멜키오르, 발다사르 성인)

송현철 지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꼭 등장하는 세 명의  
성인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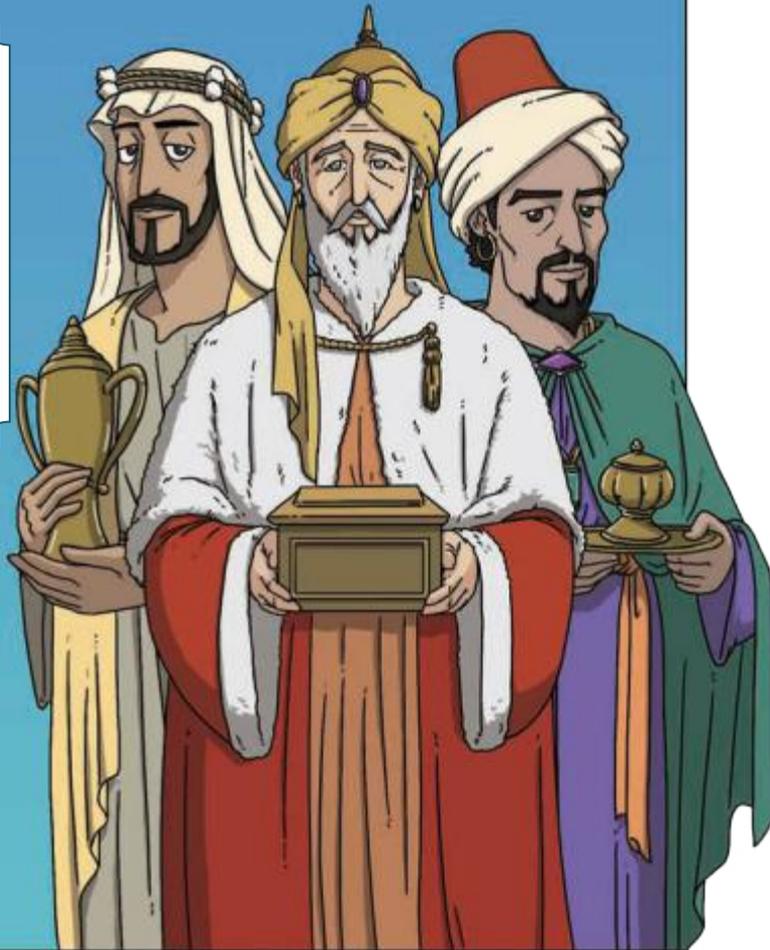
가스파르!  
멜키오르!  
발타사르!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성인명** 가스파르 Gaspar  
멜키오르 Melchior  
발타사르 Balthasar

**축일** 1월 6일

**신분** 동방 박사

**활동 시기** 1세기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의 별을 보고 그분을 경배하러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동방 박사의 방문으로 놀란 헤로데 임금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아 메시아가 태어날 곳을 물었어요.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과연 어디인가?



율법 학자들은  
미카서 5장 1절의  
말씀을 들어,  
장소를 알려 주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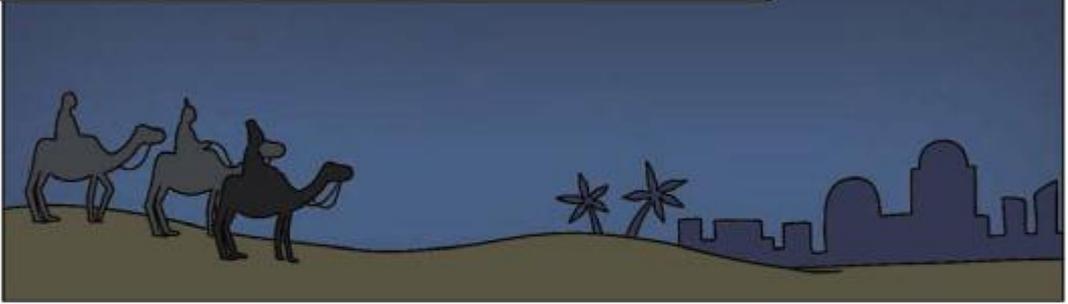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라는 말씀을 들어 유다 지방 베들레헴을 지목했어요.



헤로데 임금은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는  
자신도 경배하러 갈 테니  
아기를 찾으면  
알려달라고 했어요.



동방 박사는 헤로데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나 별이 멈춘 곳에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준비해 간 보물 상자를 열었어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꿈에  
헤로데 임금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이용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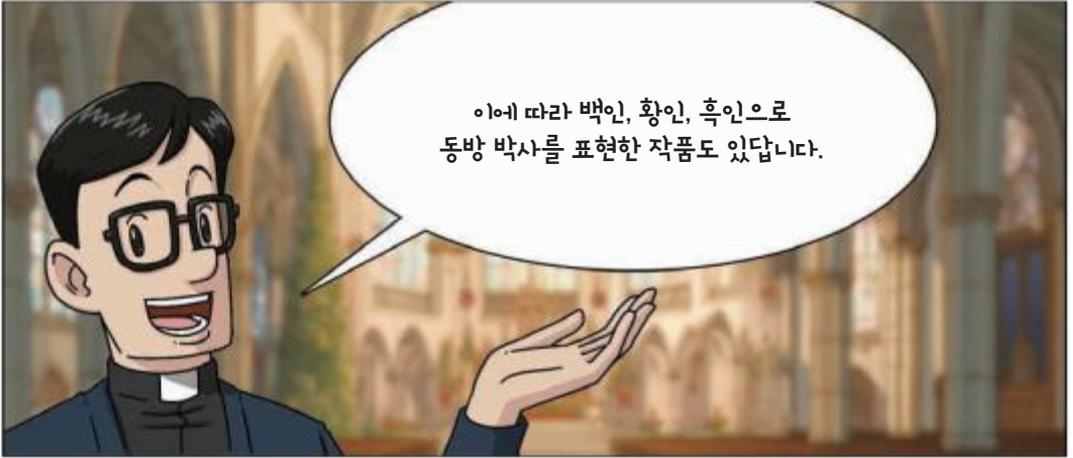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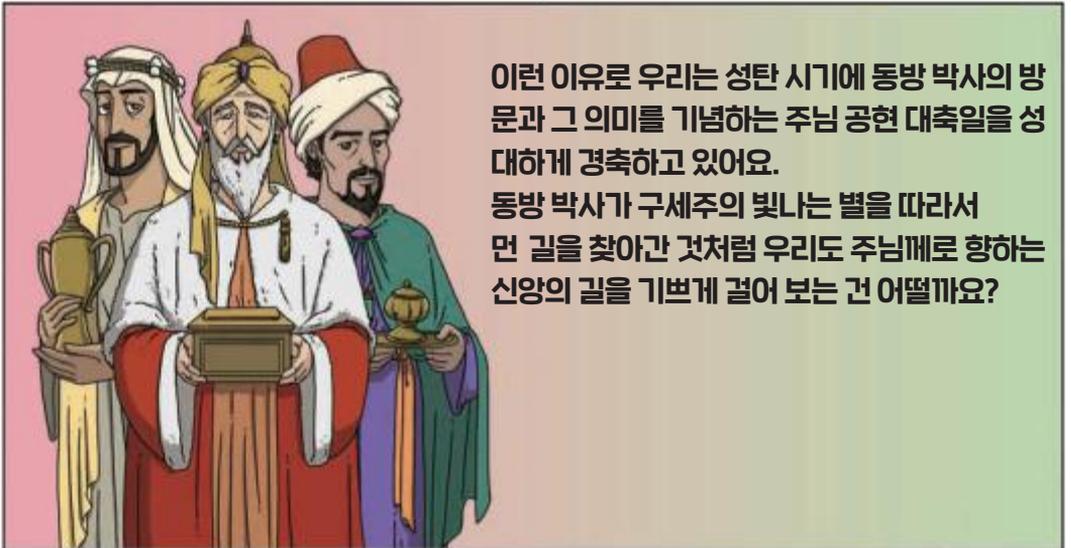


그래서 모두가 백인으로 표현되거나 또는  
한 명이 흑인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마태오 복음사가는 하느님의 나라가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싶어 한 것 같아요.





# 토마스의 전례 일기

양완 신부 지음





그게 그렇게  
한숨을 쉴 일이야?  
그동안 배운 걸로 나가면  
충분하고도 남을걸?



그런데요...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하나도 못 맞추면  
어떡해요!  
벌써 눈물이  
앞을 가려요.



크크~  
신부님이 중요한  
비밀 하나 알려 줄까?



비밀이요?  
어떤 거요?



내가 장담하는데,  
이번에 골든벨에서  
토마스보다 교리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걸?  
그러니까 진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에이~ 그게 말이 되나요?  
어른들은 성당에  
더 오래 다녔잖아요.



싹!  
이건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성당에 오래 다니는 것 하고  
교리를 많이 아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는 다들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하는데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세례받은 후에는  
전혀 공부를 안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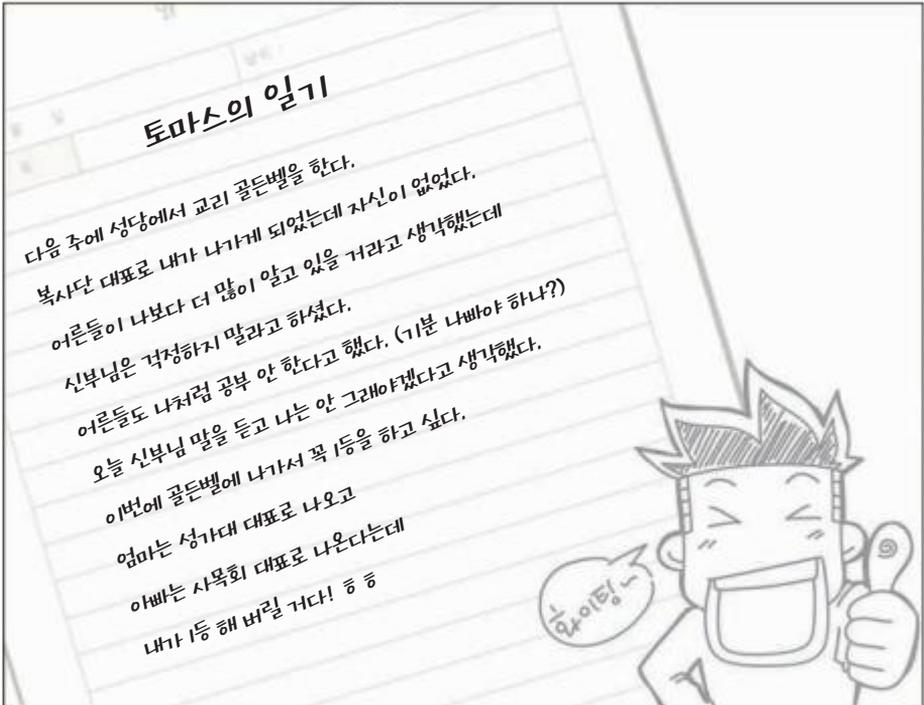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인가?  
그 있잖아~  
학교에서 시험 보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



아 진짜요?  
그렇다면  
저에게도 희망이...!



시험 본 후에 잊어버리는 건 나도 그런데,  
진짜 괜찮을까?



양완 신부님은 2017년 5월 호부터 지금까지 《소년》에 '토마스의 전례 일기'를 그려 주셨습니다.  
그동안 재미있는 전례 이야기를 담아 주신 신부님께 독자들을 대신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 세잔의 새로운 미술

글 · 도판 자료 박혜원 소피아(화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현대 미술의 문을 연 프랑스 화가, 폴 세잔(Paul Cézanne(1839~1906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자연에서 원통, 구, 원추를 봅니다. 사물을 적절히 배열하면, 물체나 면의 각 변은 하나의 중심점을 지향하게 됩니다. 지평선에 평행한 여러 선은 넓이를 줍니다. 그것은 자연의 단면을 줍니다. 반면 지평선에 수직으로 걸친 선은 깊이를 줍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이루는 모든 것들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원통, 구, 원추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폴 세잔의 작품을 함께 살펴보며, 그가 자연을 통해 무엇을 보여 주고자 했는지 알아보아요!

## 살아 숨 쉬는 듯한 그림

**폴 세잔**은 프랑스 남부 엑상 프로방스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거의 한평생 고향 땅에 살며 조형의 '본질적 구조'를 찾는 험난한 길을 선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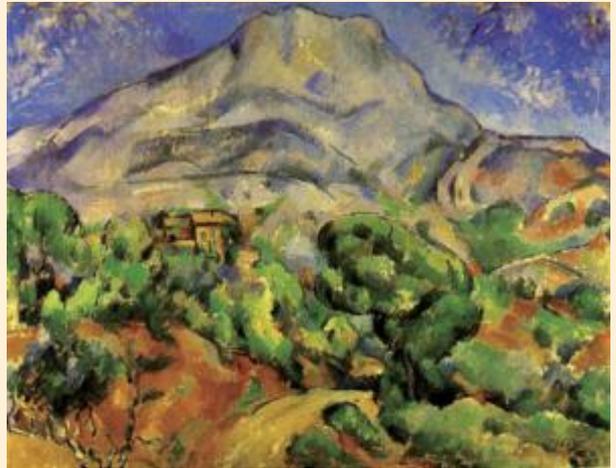
그는 사물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알맹이를 표현하고자 했어요. 사람의 근육, 피부 등으로 이루어진 몸속에는 이 모두를 지탱하는 견고한 '뼈대'가 있듯이 말이지요. 이같이 수천 년간 이루어진 자연에 대한 충실한 재현에 '새로운 시선'을 부여한 그의 공로가 너무 커서 세잔을 '현대 회화의 아버지'라고 부르곤 합니다.

세잔은 프로방스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 중에서도 자신이 머무는 화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생트 빅투아르산을 즐겨 그렸어요. 혹시 계속 같은 산만 그려서 지루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세잔은 그림의 주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앞서 말한 대로 세잔이 보는 것은 사물의 표면이 아니라 그 모두를 이루는 구조물, 뼈대니까요.

먼저 첫 번째 작품인 <르 톨로네 길에서 바라본 생트 빅투아르산의 전경>을 봅시다. 눈으로 보기에도 아름답지요. 질퍽한 하늘을 뒤로하고 육중한 모습의 산과 그 아래로 생기 넘치는 시골 마을 풍경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짧게 끊긴 거친 붓 터치로 표현해서 그런지 살아 숨 쉬는 듯한 힘찬 에너지가 느껴져요. 이렇게 힘차면서도 견고한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세잔의 작품이 담고 있는 매력이자 힘입니다.



**르 톨로네 길에서 바라본 생트 빅투아르산의 전경**

1896~1898년, 폴 세잔, 캔버스에 유채, 에르미타주 미술관, 생트 페테르부르크, 러시아

## 사실적이고 부드럽게 표현하다

**두** 번째는 〈사과와 비스킷〉으로 이번에는 ‘정물화’입니다. 물론 세잔에게는 풍경이든 인물이든 정물이든 주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 속에 있는 뼈대를 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 작품은 앞의 풍경보다 훨씬 사실적이고 부드럽습니다.



사과와 비스킷

1880년경, 폴 세잔, 캔버스에 유채. 오랑주리 미술관, 파리, 프랑스

하늘색의 커다란 꽃무늬가 있는 벽지를 배경으로 단순한 나무 탁자가 보이지요. 그 위에는 빨강, 주황, 노랑 등 개성 넘치는 색깔의 사과들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작은 접시에는 비스킷이 몇 개 있습니다.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예쁜 사과들이지만, 속은 꽤 단단할 것 같지요?

## 단순하고 견고하게 아름다움을 드러내다

**마** 지막으로 감상할 작품은 〈사발과 우유 주전자〉입니다. 이 작품은 크기가 불과 20cm밖에 되지 않는 소품입니다. 그러나 세잔이 표현하려는 단순하고 견고한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는 멋진 작품이에요.

투박하니 소박한 사발에는 오렌지색으로 테두리가 칠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뭇잎 문양이 그려져 있어요. 그 옆에는 아무 문양도 없고, 손잡이마저 부러져 더 단순해진 모습의 회색 ‘우유 주전자’가 있습니다. 소박한 나무 탁자 위에 이 두 사물만 덩그러니 놓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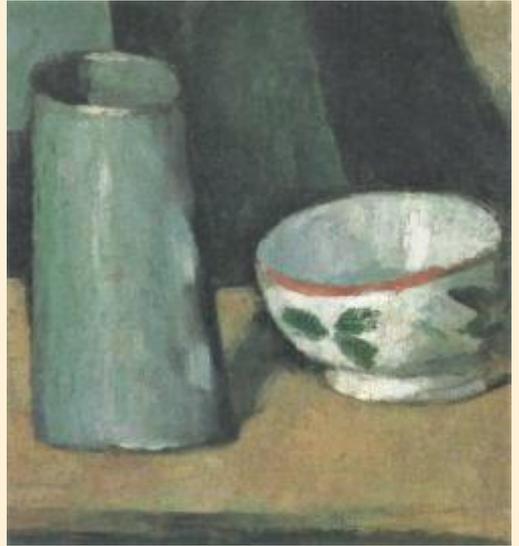
있어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뒤의 벽과 드리워진 그림자 모습도 잘 드러납니다.

세잔의 그림은 동시대 화가들과 후대에 깊은 영향을 주었어요. 19세기 말 당시 후기 인상주의인 나비파의 폴 세뤼지에 Paul Sérusi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잔의 미술은 새로운 미술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고 순수하고 고전적인’ 모든 예술의 부활을 의미한다.”

오래전부터 아름답다고 판단했던 것을 ‘고전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지요. 이같이 ‘정말’ 아름다운 것은 유행에 민감하지 않아요.

19세기 말, 이 세상에 새로운 시선을 가져온 세잔의 그림은 21세기인 오늘날 더욱 빛납니다. 그의 그림이 ‘영원한 진실’, ‘자연’이라는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



**사발과 우유 주전자**

1873~1877년경, 폴 세잔, 캔버스에 유채, 브리지스톤 미술관, 도쿄,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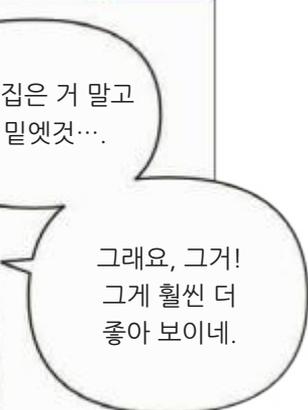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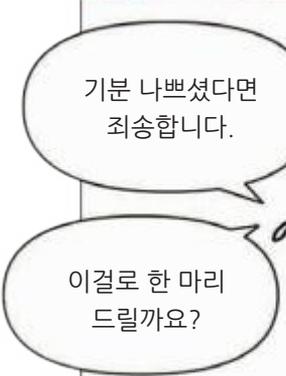
### P.S. 세잔의 작업실을 소개합니다!



이곳은 엑상 프로방스에 있는 세잔의 작업실입니다!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큰 창이 있어 밝게 빛나는 공간이지요. 그가 즐겨 그린 단순한 형태의 용기, 과일 등이 보입니다. 화려하고 다채로운 대상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 즉 그 알맹이를 표현하려 했으니 같은 사과를 수백번 그려도 지루하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작업실에서 조금만 걸어 오르면 그가 즐겨 그린 생트 빅투아르산이 있습니다. 언젠가 꼭 방문해 보세요!

박해원 선생님은 벨기에 브뤼셀 리브르 대학교에서 서양 미술사를 전공하고, 브뤼셀 왕립 미술 학교에서는 판화를 전공 하셨습니다.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하셨고, 현재는 서강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서양 미술사를 강의하십니다. 지으신 책으로는 《매혹과 영성의 미술관》, 《그림 속 음악 산책》 등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조금 전에  
집으신 걸로 주세요.

진짜  
좋아 보이네요.

네네,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니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그걸로 할래요.

다시 보니  
그게 더 좋아 보이네.

아, 손님.  
두 놈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달라고요!

뭘 봐요?  
내가 먼저 주문했으니  
내 맘이지!



어디 나도 한번  
먹어 봅시다.



황당~



아니,  
이건 사야 해!!



그거 나한테 줘요.  
내가 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주문했잖아요.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긴...

젊은 사람이  
양보 좀 하고 살아요.





버럭

아니, 지금 장난하나.  
이까짓 거 갖고  
어떻게 맛을 봐요?

기가 막혀, 정말.  
얼른 더 줘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렇지, 처음부터  
이만큼은 줘야  
제대로 맛을 보지.

나 왜 혼나고  
있는 거지?

기분 나빠!

살면서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맙시다.



말은 곧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과연 우리는 타인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고 있나요?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마태 7,16)



가로 보고 세로 보며

퍼즐 여행, 보요!

1		2			3	
4						
				5		6
7						
				8	9	
10					11	

‘신나는 퍼즐 여행’의 정답은  
78쪽에서 알려 드립니다!  
함께 풀어 봅시다!





2023년 성탄 호 정답

영	크	동	정
가	브리엘	방	
	스	박	
	마	이사야	
그	리스도		곱
	트	구원	
목	소리	죄	악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겸 인쇄인** 김대영
- 편집** 박다숨, 정주화
- 디자인** 송현철
- 본문 집필** 심재현 신부, 한승진 신부, 안송이
- 일러스트** 송현철, 김준희, 이윤진, 양완 신부

소년 2023년 성탄 호(통권 726호)

2023년 11월 26일 발행

1960년 1월 1일 창간

1964년 1월 1일 등록(서울중, 사00080호)

성경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3

서울시 중구 중림로 27(중림동)  
가톨릭출판사 1층 《소년》 편집부

- 대표 전화 1544-1886
- 편집 전화 02-6365-1864
- 후원 문의 02-6365-1867
- 이메일 sonyeon@catholicbook.kr
- 인터넷쇼핑몰 www.catholicbook.kr

《소년》은 도서 잡지 윤리 실천 강령을 지킵니다.

알립니다



《소년》은  
가톨릭출판사 인터넷쇼핑몰에서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에서 QR 코드를 찍어  
확인해 보세요! :)



가톨릭출판사

가톨릭출판사 인터넷쇼핑몰

www.catholicbook.kr ▼



신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스콧 한이 밝히는  
**파스카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네 번째 잔의 비밀

파스카 축제는 유대교의 가장 큰 축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합니다.  
 전통적으로 파스카 만찬에서는  
**포도주 네 잔**을 마십니다.

먼저 **첫 포도주 잔**을 들고 축문을 읽습니다.  
 이후 쓴나물이 제공됩니다.  
 파스카 이야기를 읽고 ‘소 알렐루야’를 부른 후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그 후 양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마지막으로 ‘대 알렐루야’를 부른 후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파스카 축제를 기념하며  
 제자들과 가진 **최후의 만찬**에서  
 네 번째 잔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왜 이 잔을 드시지 않았을까요?**

파스카 축제날의 유래부터  
 만찬을 구성하는 음식들의 의미,  
 성경 주석과 교부들의 해설까지.  
 최후의 만찬, 그 성찬례의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번째 잔의 비밀

스콧 한 지음 | 이형규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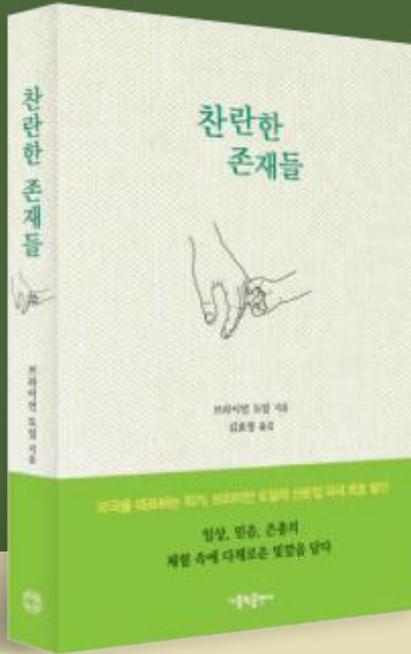


가톨릭출판사

가톨릭출판사 인터넷쇼핑몰

[www.catholicbook.kr](http://www.catholicbook.kr) ▼

#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 브라이언 도일, 찬란히 빛나는 삶의 순간을 노래하다



## 찬란한 존재들

Brian Doyle ✨

이 책은 브라이언 도일 특유의 서정적인 언어와 철학적인 시각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인생의 아름다움과 가족의 소중함, 성장의 의미와 관계 등 인간의 경험과 감정의 다양한 면을 들여다봅니다.

저자의 독특한 관점과 풍부한 상상력은 삶에 대한 깊은 사유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브라이언 도일이 보여 주는 새로운 시선을 통해 주님의 은총을 깨닫고 삶의 빛나는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찬란한 존재들

브라이언 도일 지음 | 김효정 옮김



가톨릭출판사

가톨릭출판사 인터넷쇼핑몰

[www.catholicbook.kr](http://www.catholicbook.kr) ▼